생명 옹호론자 (prolife) 운동가이자 일곱 자녀의 어머니인 루스 파칼룩(Ruth Pakaluk).

이제 루스 파칼룩의 시복 절차 가 시작되어 그녀는 "하느님 의 종"이 되었습니다.

2025-11-9

생명 옹호론자 (pro-life) 운동가이자 일곱 자녀의 어머니인 루스 파칼룩 (Ruth Pakaluk).

이제 루스 파칼룩의 시복 절차가 시 작되어 그녀는 "하느님의 종"이 되었 습니다.

...

바티칸 성인 시복 시성성에 따르면, 루스 파칼룩의 생애는 교회가 언젠가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해야 할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

파칼룩이 생전에 거주했던 우스터 교 구는 교황청 성인성성부의 승인을 받 아 그녀의 생애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, 이는 시성 선포 를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.

루스 파칼룩은 매우 따뜻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다. 그녀는 하버드 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루스 파칼룩은 하버드에서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개 종했으며 졸업 다음 해 가톨릭 신자 가 되었습니다.

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그녀는 가족을 키우고 생명 보호 운동에 헌신했습니다. 33세에 루스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1998년에, 41세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, 그녀는 친구에게이렇게 썼습니다: "나는 하느님께서주신 삶을 사랑했습니다. 다른 어떤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바람은 없습니다."

일곱 자녀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생명 권 운동에 깊이 관여했으며, 본당 생 활과 오푸스 데이 사도 활동 조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aengmyeong-onghoronja-pro-life-

undonggaija-ilgob-janyeoyi-eomeoniinruseu-pakalrug-ruth-pakaluk/ (2025-12-11)